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암참 크로스보더 투자 분과위원회

2024년 3월



## A. 서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유치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잠재력

1980년대 초 이래 대한민국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Asia-Pacific Region: APAC)으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려는 글로벌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ies: MNC)들의 중요 거점이 되어 왔다. 또 대한민국은 광범위한 조약 네트워크, 미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력한 규정 기반 법 체계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지탱하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충실한 지지자로서 주도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상업관계의 육성과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은 놀랍도록 변화하였다. 초기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대한민국은 번영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위에 자리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sup>1</sup> 세계적 권위의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Fortune 500) 리스트에는 대한민국 기업이 16개나 포진해 있다.<sup>2</sup>

대한민국 경제는 고도의 최첨단 숙련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산업으로 고속 전환 중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 지출이다.<sup>3</sup> 대한민국은 반도체, 전기차 공급망,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글로벌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형성하는 핵심 주자로서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상호 연결된 글로벌 환경 하에서 대한민국은 변혁의 시대의 변환점에 서 있으며, 이것에 발맞춰 세계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FDI와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며 국내 산업 역시 재편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그간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외국인의 유입은 급격히 증가해 그 수가 226만 명에 달하며,<sup>4</sup> 이들 중 약 200만 명은 주재원(expatriate) 또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외국인 유입이 현저히 증가한 이유는 대한민국 기업 위주로 형성되었던 비즈니스 환경에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sup>1</sup> [South Korean Economy | Outlook 2022/2023 - AsiaFundManagers](#)

<sup>2</sup> [16 Korean Companies Make It into Fortune Global 500 - Businesskorea](#)

<sup>3</sup> 대한민국, GDP 대비 R&D 지출 비중에서 OECD 국가 중 2위 차지: [S. Korea ranks 2nd among OECD nations in R&D spending as portion of GDP: reportView Details | Investment News | InvestKOREA\(ENG\)](#)  
[Sustaining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oecd.org\)](#)

<sup>4</sup> [Korea's foreign population reaches record-high of 2.26 million - The Korea Times.](#)

또 대한민국은 글로벌 가치 공급망 측면에서도 눈부신 도약을 이루며 APAC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로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탄탄한 인프라, 상당 규모의 소비 시장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확고히 구축된 공급망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 조세 규정이 변화하고(예: BEPS Pillar 2)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역본부(Asia-Pacific Regional Headquarter: APAC RHQ)를 설립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최적의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 AMCHAM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AMCHAM 이 실시한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APAC RHQ 소재국으로 선호되는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2 위를 차지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순위가 눈에 띄게 상승한 사실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지정학적 우려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APAC RHQ 소재국으로서 홍콩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추세는 엄격한 봉쇄조치 때문에 주재원들과 기업들이 중국 체류를 재고하는 등 특히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기인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본부 소재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귀중한 통찰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응답자의 **43.7%**는 현재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또한 **31%**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66.2%**는 향후 2 년 내에 자사가 속한 산업의 대한민국 내 사업 전망을 낙관적 혹은 중립적이라 응답하였으며, 대한민국이 기반 측면에 있어 추가적으로 구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과 정부 정책 및 개혁의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 기업들이 2023 년에 성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회복탄력성과 적응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역본부의 유치 및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APAC RHQ 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서 대한민국 특유의

규제, 노동정책, CEO 리스크,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개혁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77.5%**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기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사의 사업 운영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비즈니스 허브로서 관심을 집중시키려면 안정적인 규제와 지정학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한민국이 규제 불확실성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and 전략적인 정책 개혁을 실천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매력을 더욱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APAC RHQ의 유치는 대한민국에게 FDI와 영향력 높은 일자리 창출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APAC 지역 및 글로벌 산업계에서 탁월한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최적의 결과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제언서에서는 대한민국을 최적의 APAC RHQ 소재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개괄하고 대한민국을 주요 APAC RHQ 소재국으로 부상시키고 승격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B. APAC RHQ 의 의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는 지난 10 년 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며 다국적기업에 있어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글로벌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APAC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지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성을 갖춘 경험 많은 임원진이 필요하다. 또 이들 임원 각자가 회사의 글로벌 전략 비전을 아시아에서 현지화하고 실행 가능한 맞춤형 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PAC RHQ 는 아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략적 핵심지로 자리하며, 이처럼 중요한 시장에서 벤처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은 본국에 글로벌 본부(headquarter: HQ)를 두고 전 세계를 여러 개의 지리적 블록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 역학관계에 대응하는 글로벌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된 지리적 '지역(region)' 중 하나로 지정하여 현지 시장 가까이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APAC RHQ 는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일반적 사업 운영체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노동 집약적 과업에 종사하는 공장이나 단일 국가에서의 운영에 중점을 둔 법인과 달리, RHQ 는 보다 넓은 지리적 지역에 걸쳐 중요한 사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다. RHQ 는 해당 지역의 최고위급 임원들(일반적으로 글로벌 HQ 최고경영진의 바로 아래 직위)이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PAC RHQ 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최고 조직 수준에서의 고위급 임원 다수 재직
- 최고로 평가받는 임원진, 경험 있는 주재원, 현지 직원이 집결
- APAC 지역 전체의 사업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의사결정 권한
- 국가 수준 리더에 대한 감독 또는 운영에 대하여 RHQ 지도부에 보고
- 지역 전체에 대한 투자 자본의 배분을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
- 지역 전체의 예산 수립, 경영 예측 및 재무/회계 활동 감독

이 밖에도 RHQ 중에는 지주회사의 법적 구조를 취하고 거래 활동의 당사로서 역할을 하거나 상품의 물리적 흐름을 관리하고 자금운영(treasury) 기능을 수행하고 현금 풀을 구현하는 등 고가치 활동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APAC RHQ 를 여타 법인과 차별화하는 주 요인은 RHQ 가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APAC 지역 전반에 걸쳐 회사의 전략과 비전을 실행하며 각국에 진출한 현지 법인을 지원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다.

## RHQ 가 유치국에 중요한 이유 및 RHQ 유치에 따른 잠재적 혜택

전 세계 각국 정부는 APAC RHQ 유치에 목전의 이익을 얻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RHQ 를 설립하려는 다국적기업 들로부터 자국 관할권에 FDI 를 유치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RHQ 유치국이 누리게 될 광범위한 혜택에 대한 인지를 통해 세율 인하와 경제적 특전, 보상, 운영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RHQ 와 관련된 투자를 유치한다.

각국이 APAC RHQ 투자를 두고 경쟁하는 이유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현지인의 경력 개발: APAC RHQ 에 소속될 경우 단일 국가 내의 관리를 넘어서는 확장된 커리어 궤도에 접근할 수 있기에, 현지 출신 임원에게도 APAC 전 지역을 감독하는 리더십 역할로 올라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 투자 증대: RHQ 설립의 일환으로 유치국에 추가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경제 개발과 인프라 개선이 촉진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은 2022 년도 리뷰에서 "EDB 는 중기 목표에 따라 TBE 에 62 억 싱가포르달러를 확보했다.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운영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지역 및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허브로 활용하면서 본사 및 전문 서비스(Headquarters and Professional Service) 부문이 TBE 약정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리뷰에서는 "창출된 일자리 중 61%는 허브 및 비즈니스 서비스(Hub and Business Services) 부문에서... 12%는 혁신(R&D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일자리) 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라며 RHQ 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 주재원의 기여: 일반적으로 RHQ 에는 가족을 동반한 고위 임원급 주재원이 영입됨에 따라, 국내 소비와 세수가 증가하고 고급 주택, 국제교육기관,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지출이 발생한다.
- 조세 수입: 주재원과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임원의 국내 체류로 인해 유치국의 세수가 증가한다.
- 현지 경제 활성화: APAC RHQ 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인해 주택에서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된다.
- 사업 활동 다각화: APAC RHQ 소재국에는 자연스럽게 자금운영, 현금 풀링 같은 기능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접투자수단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사업 활동이 유입된다.<sup>5</sup>
- 글로벌 투자: RHQ 소재국은 R&D 시설이나 교육센터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조직으로부터 추가적인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RHQ 소재국의 글로벌 입지가 향상된다.

이처럼 APAC RHQ 유치는 장기적인 경제 혜택이 누적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각국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퀄컴(Qualcomm),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델타(Delta), 디즈니(Disney), 노벨리스(Novelis),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를 비롯한 유수의 다국적기업 다수가 APAC RHQ 소재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이 APAC RHQ 유치 경쟁에 있어 주요 후보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현재 대한민국이 APAC RHQ 유치에 있어 유력한 경쟁 후보로 인정받는 이유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한류(K-wave)' 현상을 활용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APAC RHQ 사업과 투자의 상당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

<sup>5</sup> 대한민국의 경우, 규제 체제가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싱가포르나 홍콩 등 여타 APAC RHQ 중심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벽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APAC RHQ 프로그램 초기에는 투자수단, 자금운영, 현금 풀링 등 일부 기능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बैं킹, 외환 등에 대한 규제 문제는 APAC RHQ 가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 C. APAC RHQ의 동향

지난 수년 간 다국적기업들은 전략적으로 APAC RHQ 를 배치하여 아시아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획을 앞다투어 추진해 왔다.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와 같은 지역들은 사업 수행의 용이성, 생활비, 삶의 질, 세제 혜택, 전반적인 운영 비용상 이점 등의 요인 덕분에 APAC RHQ 설립 시 선호되는 후보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은 진화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자사의 APAC RHQ 소재지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근래의 리스크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지정학적 역학관계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지정학적 안정성에 대한 강조 및 공급망 위험 완화 필요성의 증가
- **비용 문제:** 주재원의 주거와 교육 관련 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및 사업 운영 비용
- **규제 환경:** 비즈니스 규제 환경 및 법적 투명성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의 용이성:** 여러 소재지 별 사업 수행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지리적 시장과의 인접성:** 최대 시장 및 고객과의 인접성 고려
- **인재 접근성:** 해당 소재지의 인재 가용성 및 주재원 임무 수행 및 생활 적합성 평가
- **조세 부담:** 주택 및 교육 비용을 포함한 주재원 및 현지 직원 고용과 관련된 비용 및 조세 부담 검토
- **조세 환경의 변화:** BEPS Pillar 2 시행 이후로 기존 세제 혜택의 가치에 미칠 영향 고려

역사적으로 APAC RHQ 소재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과 같은 허브 도시에는 다수의 RHQ 들이 설립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RHQ 소재지에 대한 고려 사항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소재지 별로 추산된 APAC RHQ 추정 개수 자료이다.



### 소재지 별 추산 APAC RHQ 개수

소재지	추산 APAC RHQ 개수
싱가포르	RHQ 약 5,000 개 <sup>6</sup>
홍콩	RHQ 약 1,400 개/ 지역 사무소 2,400 개 <sup>7</sup>
상하이	RHQ 약 900 개 <sup>8</sup>
대한민국	한정적
ASEAN(싱가포르 이외)	한정적
일본	한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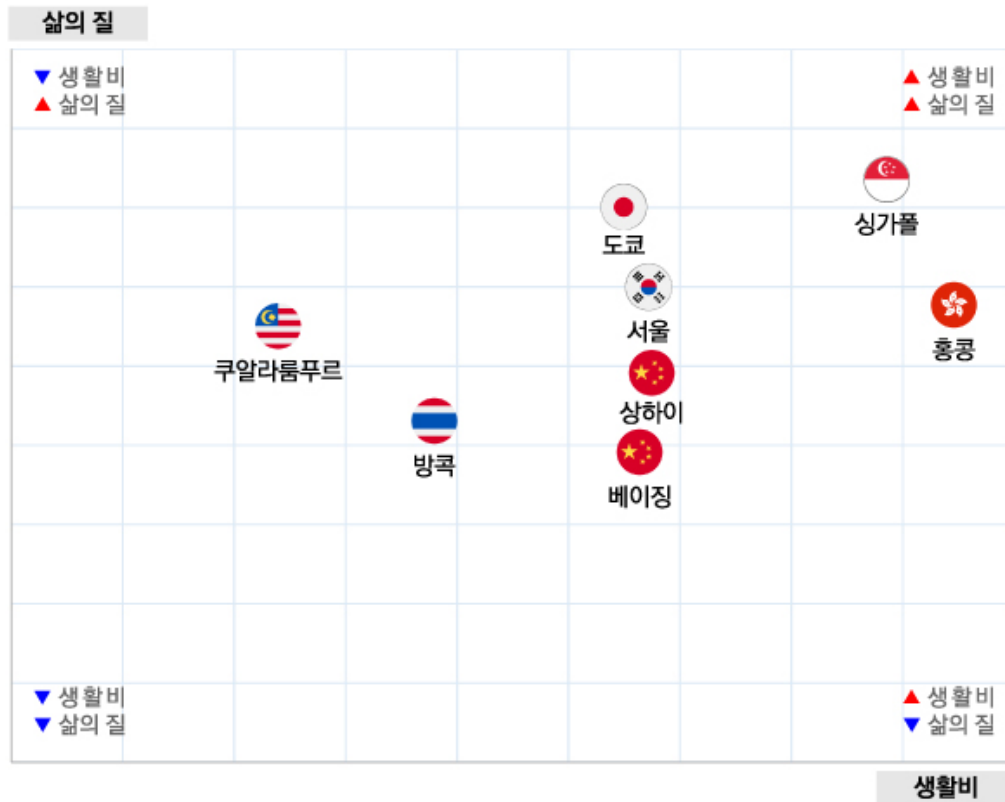
RHQ 소재지를 평가할 시에는 반드시 현지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고려하여야 한다. 머서(Mercer)에서 분석한 ‘생활비와 삶의 질(Cost of Living and Quality of Living)’ 등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APAC RHQ 소재지로 선호되던 곳에서의 주재원 생활비와 주거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기존의 선택을 재고하고 진화하는 글로벌 역학관계에 부합하는 대안적인 소재지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sup>6</sup> "APAC Regional Headquarters" Cushman & Wakefield Research, 2016

<sup>7</sup> Foreign-affiliated Companies in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of Hong Kong.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www.censtatd.gov.hk/en/scode360.html>.

<sup>8</sup> WTS Global (2022) <https://wts.com/global/publishing-article/20221216-china-shanghai-rhq-regulations~publishing-article>  
 "Shanghai eases RHQ regulations" WTS Global (2022) <https://wts.com/global/publishing-article/20221216-china-shanghai-rhq-regulations~publishing-article>

## 2023 년 생활비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 - APAC



APAC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Top 10

세계 순위

1. 싱가포르 ..... 29<sup>th</sup>
2. 요코하마, 일본 ..... 47<sup>th</sup>
3. 도쿄, 일본 ..... 50<sup>th</sup>
4. 오사카, 일본 ..... 58<sup>th</sup>
5. 서울, 대한민국 ..... 81<sup>st</sup>
6. 타이페이, 대만 ..... 82<sup>nd</sup>
- 7.\* 부산, 대한민국 ..... 95<sup>th</sup>
- 7.\* 타이중, 대만 ..... 95<sup>th</sup>
9. 상하이, 중국 ..... 109<sup>th</sup>
10. 베이징, 중국 ..... 126<sup>nd</sup>

\* 순위가 같은 도시의 경우 삶의 질 관련 동일 점수 획득

APAC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비가 비싼 도시 Top 10

세계 순위

1. 홍콩 ..... 1<sup>st</sup>
2. 싱가포르 ..... 2<sup>nd</sup>
3. 상하이, 중국 ..... 12<sup>th</sup>
4. 베이징, 중국 ..... 13<sup>th</sup>
5. 서울, 대한민국 ..... 16<sup>st</sup>
6. 두바이, UAE ..... 18<sup>th</sup>
7. 도쿄, 일본 ..... 19<sup>th</sup>
8. 선전, 중국 ..... 20<sup>th</sup>
9. 광저우, 중국 ..... 36<sup>th</sup>
10. 아부 다비, UAE ..... 43<sup>rd</sup>

출처: Mercer's 2023 Cost of Living Survey

또 최근 몇 년 간,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과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끊임없이 격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지정학이 변화하고 동맹관계를 통한 경제 안보가 점차 강조됨에 따라, 역사적으로 선호되었던 APAC RHQ 소재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본토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FDI, 사업 운영, APAC RHQ 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목격되고 있으며 다음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이 같은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들 국가의 비즈니스 자유도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APAC RHQ 소재지 선택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조성되었다.
- 이전까지 성공적으로 APAC RHQ 를 유치했던 홍콩과 중국 본토가 현재는 코로나 19 와 관련된 봉쇄조치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기업들이 장기 전략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up>9</sup>
-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점차 ‘국내 주권(domestic sovereignty)’과 지역 블록 형성을 강조하며 세계화에서 탈피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BEPS 2.0 Pillar 1 과 같은 국제 세법의 변화로 저 세율 관할 지역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APAC RHQ 유치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싱가포르 등이 제공하는 상당한 세제 혜택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많은 기업들이 대안적 RHQ 소재를 모색하거나 APAC 전략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기업들은 APAC 지역에 만연한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APAC RHQ 소재지가 현재의 환경에서 지역 운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언스트앤영(Ernst & Young: EY)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AC 조세 심포지엄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APAC RHQ 소재지와 관련한 고려사안과 현행 RHQ 운영방식의 잠재적

---

<sup>9</sup> *Growing risk of Geoeconomic Fragmentation*<sup>9</sup> (출처: IMF 연구 보고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최근 몇 년간 나타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려되는 이유는 분절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정책 조치가 없더라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관망’ 기조가 형성되어 투자 중단이나 지역 이전을 고려하게 되기도 한다. (IMF 보고서 48 페이지 도표 3.2.1.)

제약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약 30%가 APAC RHQ 소재지 및 운영방식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sup>10</sup>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APAC 환경에서 전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의 역동성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지금 즉시 APAC RHQ 유치를 향한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sup>10</sup> EY Asia-Pacific Tax Symposium 2023, Nov 7, 2023. Ernst & Young,

## D. 대한민국이 선호되는 APAC RHQ 소재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규제 개혁

대한민국에서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과 비견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 노동 유연성

대한민국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역내 경쟁국들에 비해 채용 및 해고 관행이나 근로 시간을 비롯한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아직 뒤처져 있다. 특히, 현행 초과근무 체계는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규제하여 업무 효율성과 개인의 유연한 시간 활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업들에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별 노동정책 및 유연성

	대한민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노동 유연성	97 위/141 개국	11 위/141 개국	19 위/141 개국	1 위/141 개국
채용 및 해고 유연성	102 위/141 개국	104 위/141 개국	1 위/141 개국	3 위/141 개국
근로시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당 40시간</li> <li>주당 최대 초과 근무 12시간<sup>1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당 40시간</li> <li>월간 최대 초과 근무 45시간 &amp; 연간 초과 근무 360시간<sup>1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 시간을 명시한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당 44시간</li> <li>월간 최대 초과 근무 72시간<sup>13</sup></li> </ul>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주: 개정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초과근무 가능 시간은 계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월별 계산 시에는 52 시간, 분기별 계산 시에는 가능 시간의 90%(140 시간), 반기 별 계산 시에는 가능 시간의 80%(250 시간), 연간 계산 시에는 가능 시간의 70%(약 440 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된다. 초과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1 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69 시간에서 64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sup>11</sup>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1 (Flexible Work Hours System)

<sup>12</sup> Labor Standards Law Chapter IV. Working Hours, Rest Periods, Rest Days, and Annual Leave with P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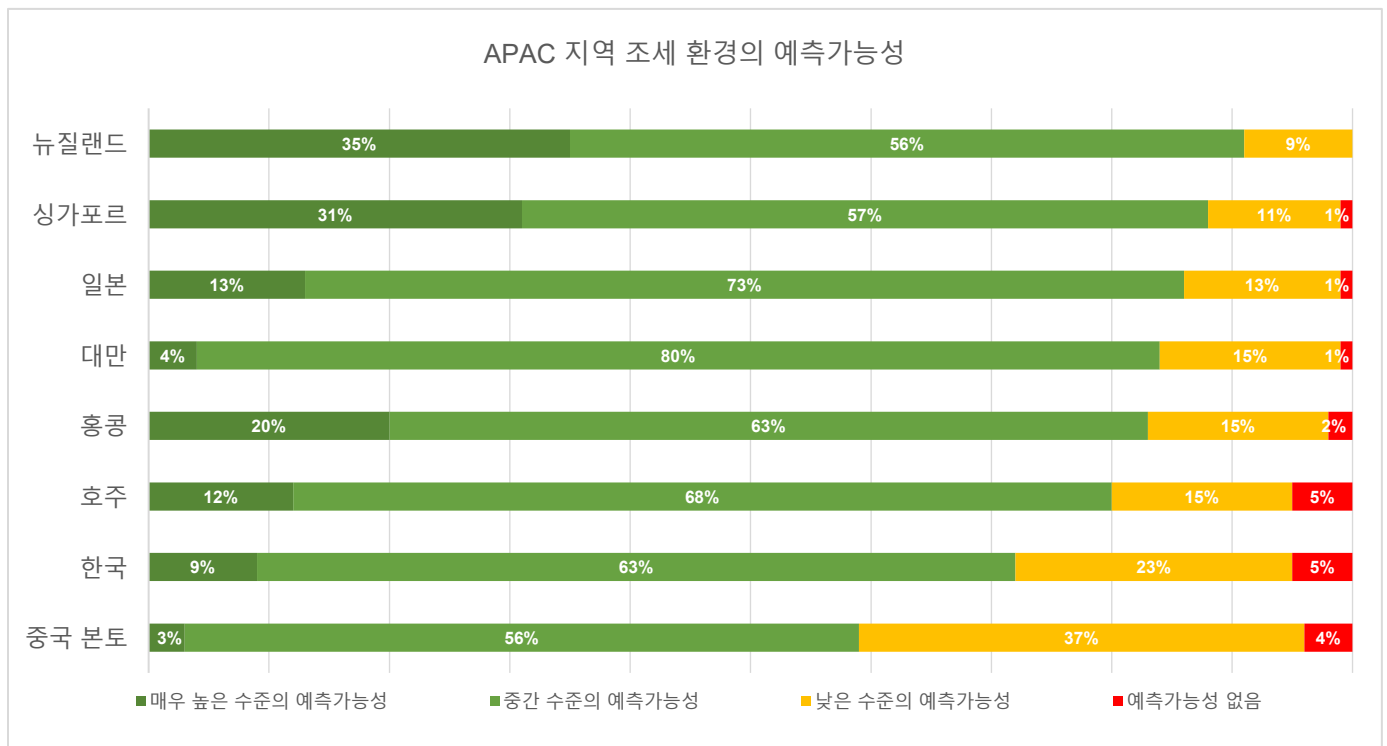
<sup>13</sup> The Employment Act, Part IV

## ○ 조세 집행의 예측가능성

대한민국이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NTS)은 조세환경 예측가능성의 개선 방편으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세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대한 답변(tax rulings)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획 단계에 사전에 해법해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를 활용하려는 납세자를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이 개선된다면 기업들이 확신을 가지고 국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APAC 지역 조세 환경의 예측가능성



출처: [Deloitte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21](#)

주: 이 결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원 407 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다.

## ○ CEO 리스크 및 책임

대한민국에서 CEO는 법인세, 관세 등의 세금이나 산업 재해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형사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관행과 대조되는 이러한 대한민국 특유의 형사 책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대한민국 임원들의 전과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데 일조한다. CEO의 형사 책임 리스크를 완화하고 CEO가 고의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그러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은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감소라는 합리적인 정책 목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산업재해'<sup>14</sup>에 있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여타 국가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여 처벌하기에 CEO의 전반적인 위험 환경을 가중시킨다.

###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현황

	대한민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수준</b>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sup>15</sup>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480만 원) <sup>16</sup>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 (5억 900만 원) <sup>17</sup>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4억 8,200만 원) <sup>18</sup>

## ○ 디지털 경제 규제

현재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과 관련해 규제로 인한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금융 서비스, ICT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저해되고 있다. 대한민국 클라우드 시장은 망 분리, 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sup>14</sup> 중대한 산업재해는 (1)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인해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3) 동일한 유해 요소에 기인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에게서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sup>15</sup> 중대재해처벌법 제 2장 제 6조

<sup>16</sup>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12장 벌칙 119조

<sup>17</sup> 홍콩 직업안전 및 건강 조례 제 2부 직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

<sup>18</sup>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 제 10부 위반, 처벌 및 소송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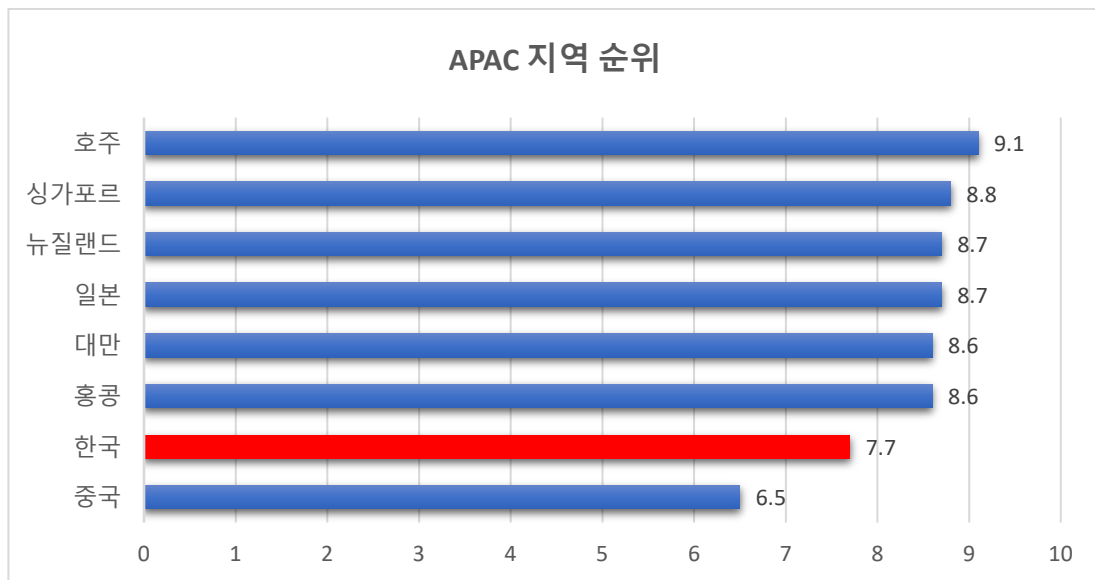
CSAP), 보안 평가 제도(Security Evaluation Scheme: SES) 등의 규제로 인해 글로벌 환경과 완전히 분리되어 AI 를 비롯한 혁신 기술의 국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역내 경쟁국과 대한민국의 CSAP 규제 비교

	대한민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데이터 현지화 요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CSAP 상응 요건 <sup>19</sup>	있음	없음	없음	없음
논리적 망 분리 허용	불허	허용 <sup>20</sup>	허용	허용

출처: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ess Release on April 4, 2022](#)

### 클라우드 보안 및 보증 지수



출처: [The Global Cloud Ecosystem Index 2022](#) by MIT Technology Review

주: 이 차트의 점수는 혁신적이고 클라우드 지향적인 데이터 보안 및 주권 환경을 촉진하는 규제 환경 성숙도를 측정한 것이다.

<sup>19</sup> CSAP 상응 요건은 데이터 현지화 및 소스 코드 전송 또는 접근을 요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sup>20</sup> NIST 에 따르면, 논리적 망 분리는 암호화 또는 네트워크 장치 강제 파티셔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Guide to Industrial Control Systems (ICS) Security, Special Publication 800-82, revision 2)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은 APAC 지역의 다른 선진국들은 논리적 망 분리를 수용하고 사이버보안에 있어 더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해 금융 기술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E.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패키지 비교**

FDI 및 기타 투자에 있어 국가 간의 유치 경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자처로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RHQ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RHQ 수준의 투자를 검토하는 다국적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개, 성공적으로 RHQ 를 유치한 국가들은 사업 수행의 용이성, 강력한 법률 인프라, 효율적인 재무 및 인력 조달 등의 측면에 있어 탁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초기 투자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조세환급, 인센티브 혹은 그 외 형태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재정적 혜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되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 기관이 중심이 되어 RHQ 전용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APAC RHQ 의 본거지가 되어 왔다. APAC RHQ 를 설립할 장소에 대한 평가에서 대한민국, 일본,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고려되는 경우들도 존재했지만, 이들 사례는 주된 추세라기 보다는 산발적인 사업적 의사결정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적격 기업에 최대 30 년 간 0%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RHQ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 국가가 성공적으로 많은 다국적기업을 끌어들이 APAC RHQ 를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공식 RHQ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미 APAC RHQ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이 제공하는 선진적 프로그램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매력적인 인센티브 패키지와 다양한 시장 요인을 결합한 APAC RHQ 프로그램을 공식화해오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을 나란히 비교한 아래의 표에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대로 설계된 APAC RHQ 프로그램과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춘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FDI 를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PAC RHQ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APAC RHQ 비교표

소재지	가장 비싼 도시 순위 <sup>21</sup>	삶의 질 순위 <sup>22</sup>	공식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APAC RHQ 개수	담당 정부 기관	법인세율
싱가포르	#2	#29	있음	약 5,000	경제개발청(EDB)	17% (RHQ 후 특전: 5-10%) <sup>23</sup>
홍콩	#1	#77	세제 혜택 있음 (RHQ 프로그램 없음)	약 1,400	상업경제개발국(CEDB)	16.5% <sup>24</sup>
상하이	#12	#109	있음	약 940	상하이시상무위원회(SMCC)	25% <sup>25</sup> (중국 본토)
대한민국	#16 (서울)	#81 (서울)	있음	한정적	기획재정부(MOEF) / 산업통상자원부(MOTIE)	24% <sup>26</sup>
태국	#105 (방콕)	#124 (방콕)	있음	한정적	태국투자청(BOI)	20% (RHQ 후 특전: 15%) <sup>27</sup>
말레이시아	#180 (쿠알라룸푸르)	#86 (쿠알라룸푸르)	있음	한정적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24% (RHQ 후 특전: 14-19%) <sup>28</sup>
일본	#19 (도쿄)	#50 (도쿄)	있음	한정적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23.2% <sup>29</sup>

<sup>21</sup> Cost of Living City Ranking 2023. (2023). Mercer.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www.mercer.com/insights/total-rewards/talent-mobility-insights/cost-of-living/?size=n\\_20\\_n#full-ranking](https://www.mercer.com/insights/total-rewards/talent-mobility-insights/cost-of-living/?size=n_20_n#full-ranking)

<sup>22</sup> Quality of Living City Ranking 2023. (2023). Mercer.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www.mercer.com/insights/total-rewards/talent-mobility-insights/quality-of-living-city-ranking/?size=n\\_20\\_n](https://www.mercer.com/insights/total-rewards/talent-mobility-insights/quality-of-living-city-ranking/?size=n_20_n)

<sup>23</sup> Basic Guide to Corporate Income Tax for Companie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basic-guide-to-corporate-income-tax-for-companies>

<sup>24</sup> 홍콩 법인세 체계는 2 단계 구조가 특징으로 과세표준 200 만 홍콩달러까지는 8.25%,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16.5%의 세율을 적용한다.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taxrates/profitsrates.htm>.

<sup>25</sup> 2020 년 1 월 1 일부터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링강신구(Lingang New Area)에서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민간항공 등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생산 또는 R&D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 기업은 설립일부터 5 년간 15%의 법인세 세율 감면을 받을 수 있다.

<sup>26</sup>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과세표준 3,000 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korea/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sup>27</sup>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거주 법인으로 간주하여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300 만 바트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taxsummaries.pwc.com/thailand/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sup>28</sup> 거주 법인에는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Lembaga Hasil Dalam Negeri. Retrieved February 7, 2024, from <https://www.hasil.gov.my/en/company/tax-rate-of-company/>

<sup>29</sup> 2023 년 4 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자본금 1 억 엔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일본의 표준 법인세율은 23.2%이다. Retrieved from February 7, 2024 from <https://taxsummaries.pwc.com/japan/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 싱가포르**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싱가포르



싱가포르 내 지역본부/본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재량적 세제 혜택의 예

활동	세제 혜택	주요 특징
본부(HQ)/ 지역 또는 글로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축 및 확장 인센티브</li> <li>승인된 로열티에 대한 인센티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 HQ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또는 10%의 특혜세율 적용</li> <li>승인된 로열티 및 라이선스 지급료에 대해 0%, 1% 또는 3%의 원천징수세 감면</li> </ul>
무역 또는 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트레이더 프로그램 (Global Trader Progra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 소득에 대해 5% 또는 10%의 특혜세율 적용</li> </ul>
금융 및 자금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 및 자금운영 센터(Finance and Treasury Cent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 소득에 대해 8%의 특혜세율 적용, 특정 해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li> </ul>
지적재산(IP) 및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 개발 인센티브</li> <li>IP 표준공제(Writing down Allowance)</li> <li>R&amp;D 소득공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 IP 소득에 대해 5% 또는 10%의 특혜세율 적용</li> <li>5년, 10년 또는 15년 동안 IP 취득가액 표준공제</li> <li>현지 R&amp;D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250%로 확대</li> </ul>

RHQ 유치를 위한 핵심 영역에 있어 강력한 명성을 구축한 **싱가포르**

지적재산 및 유형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 : 아시아 #1 및 세계 #2<sup>(1)</sup>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질 : 아시아 #1 도시<sup>(2)</sup>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 세계 #2<sup>(3)</sup>

정치적 안정성 : 아시아 #1 및 세계 #3<sup>(4)</sup>

(1) Property Rights Alliance,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2

(2) Mercer's 2023 Cost of Living Survey

(3) INSEAD, 2022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4) The Global Economy.com, Political Stability Index 2021

## 사무소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홍콩

### 사무소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홍콩



홍콩 역외에 존속하는 모기업의 **홍콩 내** 지역 RHQ, 지역 사무소 및 현지 사무소

#### 홍콩 조세 제도 및 혜택 요약

과세 기준	원천지주의
CIT 세율	16.5%
GST/VAT	없음
가능한 특혜세율	2 단계 사업소득세율 체계: 과세표준 200 만 홍콩달러까지 8.25%,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는 16.5% 적용
배당금/서비스/이자	0%
로열티	4.95% / 16.5% <sup>(2)</sup>
조약망(발효 중)	현재 46 개, 신규 체결 1 개, 16 개 관할 지역과 협상 중
BEPS 에 대한 OECD 포괄적 이행체계	적용
HQ 인센티브	없음
<b>유형</b>	<b>개수(인구통계부 조사)</b>
RHQ	1,411
지역 사무소	2,397
현지 사무소	5,170

RHQ 유치를 위한 핵심 영역에 있어 아래 분야들을 탄탄히 발전시킨 **홍콩**<sup>(2)</sup>

투자 환경: 세계 #1

역외 위안화 허브 : 세계 #1

최저 과세 데이터 센터 시장 : 세계 #1

경제 자유도 : 세계 #2

사업 수행 용이성 : 세계 #2

글로벌 금융 중심지 : 세계 #2

선도적 투자 허브 : 세계 #2

(1) 지급이 관련 비거주자에 대해 발생하고 홍콩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IP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 16.5%를 적용한다.

(2) Legatum Institut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Brandhk website, Cushman & Wakefield: 2023 Global Data Center Market Comparison,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3 Annual Report,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Report 2020, Z/Yen and China Development Institute from Shenzhen: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 상하이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상하이



- 2022 년 12 월까지 상하이 내 설립된 RHQ 891 개소
- 주요 상하이시 RHQ 특별 금융자금 관리정책

#### 1. CHC 설립 자금

<b>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년 7 월 7 일 이후 상하이에 등록 또는 이전</li> <li>• 직원 수 10 명 이상</li> <li>• 납입자본금 3,000 만 달러 초과</li> </ul>
<b>혜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 만 위안</li> <li>• 매년 40%, 30%, 30% 비율로 부여</li> </ul>

#### 2. RHQ 임대료 보조금

(보조금 수취 기간에 RHQ 는 사무소 건물을 임대 또는 전대하거나 사무소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

<b>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년 7 월 7 일 이후 상하이에 등록 또는 이전</li> <li>• 직원 수 10 명 이상</li> <li>• 납입자본금 200 만 달러 초과</li> </ul>	
<b>혜택</b>	임대 사무소 • 기준: 1) 면적 ≤ 1000m <sup>2</sup> 2) 임대료 ≤ 8/1 일/m <sup>2</sup> • 3 년간 임대료의 30%	자기 소유 사무소 임대 사무소 기준에 준하는 일회성 보조금

#### 3. RHQ 운영 보상

<b>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년 7 월 7 일 이후 RHQ 로 인정된 법인</li> <li>• 납입자본금 200 만 달러 초과</li> <li>• 연간 매출 5 억 위안 이상</li> </ul>		
<b>혜택</b>	5 억 ≤ 매출 < 10 억 (위안): 보조금 500 만 위안	5 억 ≤ 매출 < 15 억 (위안): 보조금 500 만 위안	매출 ≥ 15 억 (위안): 보조금 200 만 위안
	매년 40%, 30%, 30% 비율로 일회성 보상금 부여		

#### 4. RHQ 발전 보조금

<b>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년 1 월 1 일 이후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또는 더 광범위한 RHQ 로 인정되거나 승격된 법인</li> <li>• 직원 수 50 명 이상</li> <li>• 납입자본금 200 만 달러 초과</li> <li>• 고위 경영진이 상하이에 있을 것</li> </ul>
<b>혜택</b>	일회성 보조금 300 만 위안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 대한민국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대한민국



#### 1. RHQ 지정 제도

##### 지정 기준

- 모기업의 5 년간 평균 매출 3 조 원 초과
- 2 개 이상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핵심 기능(영업, 생산, 조달, 인사) 지원 및 조정 역할
- 종업원 10 인 이상, 외국인 투자 금액 1 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 혜택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 납세증빙 제출 의무 완화
- D-8 비자 체류기간 연장(1~3 년 → 5 년)

#### 2. 현금 보조금 및 사업장 지원

##### 현금 보조금:

외국인 투자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

▷ 협상 후 투자 금액의 최대 30% 보상(첨단 기술은 40%, R&D 는 50%)

##### 사업장 지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장기 임대 지원(최대 50 년), 임대 지원

▷ 임대료 감면 50~100%

#### 3. 지자체 혜택

##### 지방세 감면:

기술 기준 및 투자 금액에 따라 15 년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보조금:

교육 및 훈련 보조금, 고용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등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 태국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태국



#### 태국투자청(BOI) - 세제 혜택 외 인센티브

- 모든 BOI 추진 사업 지원자에게 부여
- BOI 비즈니스 운영 목적의 토지 소유 허가
- 외국인 소유권
- 비자 및 취업 허가 목적상 주재원 무제한 고용 허용

#### 국제 비즈니스 센터(IBC) - CIT 혜택

- 연간 현지 지출 수준에 따라 적격 IBC 수익에 대해 법인세(CIT) 세율 감면(8%, 5% 또는 3%)
- 배당소득에 대한 CIT 면제
- 적격 배당 분배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WHT) 면제
- 적격 자금운영 센터 소득에 대한 특정 사업세 면제
- 납입자본금 ≥ 1,000 만 바트

#### BOI - 기타 세제 혜택

- BOI 추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면세 기간 및 세금 혜택 기간(tax holiday) 종료 후 최대 6 개월까지 BOI 수익에서 분배되는 배당금에 대해 수입 관세 및 WHT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IBC 에서 근무하는 적격 주재원의 소득세에 대해 15%의 단일세율 적용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 글로벌 서비스 허브

-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에서 2023 년 10 월 14 일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신규 및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음
- **법인세 면제:** 5+5 년/ 세율 5% 또는 10%
- **특별 소득세율:** 비시민(non-citizen) 개인 또는 최고경영진 직위 최대 3 명까지 15%
- **면제 대상 소득의 유형:** 서비스 소득 및/또는 무역 소득
- **적격 서비스**
  - 지역 P&L/경영 유닛, 전략적 사업 계획, 기업 발전
  - 아래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는 적격 활동 두 가지  
: 전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공유 서비스
- **기타 검토사항:** 직원 수, 지출 등



##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 사우디아라비아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KSA)의 RHQ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초 설립 국가를 제외한 2 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다국적기업에 적용됨

주요 규제 요건	인센티브 및 혜택
<p>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다국적기업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MISA)에서 RHQ 라이선스를 취득.</li> <li>• 라이선스 발급 후 1 년 이내에 최고경영진급 임원 최소 3 명을 포함하여 최소 15 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li> <li>• MENA 지역에서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관리통제센터'로 운영</li> <li>• RHQ 활동을 (MISA 규정에 따른) 필수 기능 총 목록 및 최소 세 가지 선택 활동으로 제한</li> <li>• KSA 에 RHQ 를 설립 후에는 기존의 모든 MENA 법인이 KSA 의 RHQ 에 보고 (RHQ 는 라이선스 발급 후 6 개월 이내에 운영을 시작해야 함)</li> </ul>	<p>MISA 는 아직 제공할 혜택의 최종 목록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HQ 에 대하여 10 년간 사우디인 의무고용(Saudisation) 요건 면제</li> <li>• RHQ 직원에게 수적 제한 없이 비자 발급 가능</li> <li>• 아제르(Ajeer) 포털을 통해 RHQ 직원의 부양가족을 위한 고용 기회 창출</li> <li>• 본국의 유효 자격증명을 보유한 RHQ 직원에 대해 전문 자격증명 요건 면제</li> <li>• 라이선스 발급 시점부터 시작되는 RHQ 관련 기업 소득 및 원천징수세에 대해 30 년간 세금 감면(0%)</li> </ul>

### RHQ 설립 절차

KSA 에서 RHQ 를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2 단계로 이루어짐.

1. MISA 에 라이선스 신청
2. KSA 에서 RHQ 법인을 지사(branch office) 또는 유한책임회사(LLC)로 설립

MISA 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KSA 밖에서 발급된 문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명요건을 면제하여 라이선스 취득 시의 절차 요건을 완화함

APAC RHQ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안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초기 법인 설립 및 대한민국으로의 리소스 배치 시 하기 요인과 관련된 경험을 개선한다면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A. RHQ 로서의 접근성:** 원활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 절차 및 사무소 공간 확보 등, RHQ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 요소를 검토
- B. 이주의 용이성:** 취업 비자 기간 및 부양 배우자의 취업 비자 발급 문제를 비롯하여 비자 관련 및 특정 이주 고려사항을 신속화
- C. 은행거래 설정 절차:** 은행 업무 관련 설정 및 현지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
- D. 교육 지원:** 많은 주재원이 자녀를 포함한 가족 동반으로 대한민국에 이주한다. 적절한 비용으로 외국인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학교에 APAC RHQ 직원의 부양가족을 위해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 E. 주거 지원:**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임대주택 시장은 다른 많은 국가 들에서 주를 이루는 '월세' 방식과 달리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 방식을 이해하고 주택 확보에 필요한 고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 보유에 어려움을 겪는 APAC RHQ 직원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재원이 부딪히는 주된 문제는 정착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은 '정착의 용이성' 부문에서 54 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낮은 순위는 세부 항목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은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 평가에서 57 개국 중 56 위, '호의적이고 친절함' 평가에서 50 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다.<sup>30</sup>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40.8%가 대한민국 생활 경험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39.6%는 "다소 만족한다"고 답하였다.<sup>31</sup>

<sup>30</sup> [Korea ranks low on expats' favored nations list - The Korea Times](#) from updated article on May 20, 2021

<sup>31</sup> [How content are expats in Korea? Survey shows 8 in 10 satisfied \(koreaherald.com\)](#) article on September 6, 2023

## F. 결론

최근 한미 관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 몇 해 간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자극하고 첨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비롯해 한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강력한 전략적 동맹관계와 광범위한 조약 및 KORUS FTA 관계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 보장됨으로써 한미 간 글로벌 무역이 촉진되고 있다.

본 제언서에서는 다음을 비롯한 긍정적인 발전 조치를 제안하는 바이다.

### 1. 규제 개혁 실시

- 노동 유연성: 대한민국은 채용 및 해고 관행이나 경직된 근로 시간 규제 측면에서 다른 APAC 지역 경쟁국들보다 노동 유연성이 부족한 편이다. 노동 시장의 적응력을 개선시킨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세 집행의 예측가능성: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자발적 세무 감사 및 세법해석에 대한 답변 요청 조건을 확대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절차를 신속화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국제 거래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 CEO의 리스크 및 책임: 대한민국에서 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되어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를 신중하게 완화시켜 CEO가 고의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CEO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여 CEO의 위험 환경을 가중시킨다.
- 디지털 경제 규제: 대한민국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에 제약을 받고 첨단 기술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저해되고 있다. 망 분리, CSAP, SES 등의 조치로 시장이 분화되어 AI를 비롯한 혁신 도입이 지체되는 상태다.

## 2. 명확하게 정의된 APAC RHQ 프로그램 구축

- APAC RHQ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할 고위급 임원의 최소 인원수, 현지 대한민국인 임원에게 적용할 요건, 프로그램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매개변수의 규정 등이 포함된다.
- 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목적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임대 공간 보조금, 소정 기간의 VAT 환급, 국제 교육 및 이주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전반적 매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고급 오피스 공간을 위한 혜택을 도입하여 APAC RHQ 다운 특별한 업무 환경을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고액의 부동산 보증금 마련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주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 교육기관에 대한 혜택을 검토하여 RHQ 소재국으로서의 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3. APAC RHQ 프로그램 적극 홍보

- 정부 기관 및 지방 단체 간의 협업과 광범위한 산업계 안의 협업을 통해 APAC RHQ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장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외 다국적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둘러싼 잠재적 민감성을 인식하여 균형 잡힌 접근법이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

## 4. 주재원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 주재원을 위해 은행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이주 절차와 금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또 휴대폰을 원활히 개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전반적인 주재 경험과 사업 수행 용이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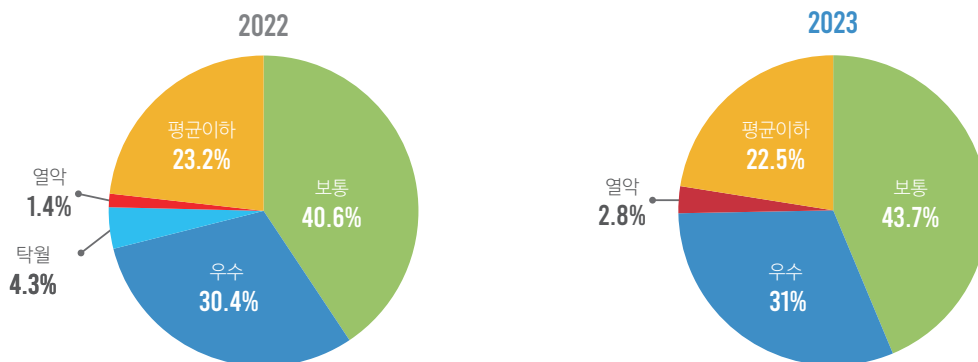
**부록: AMCHAM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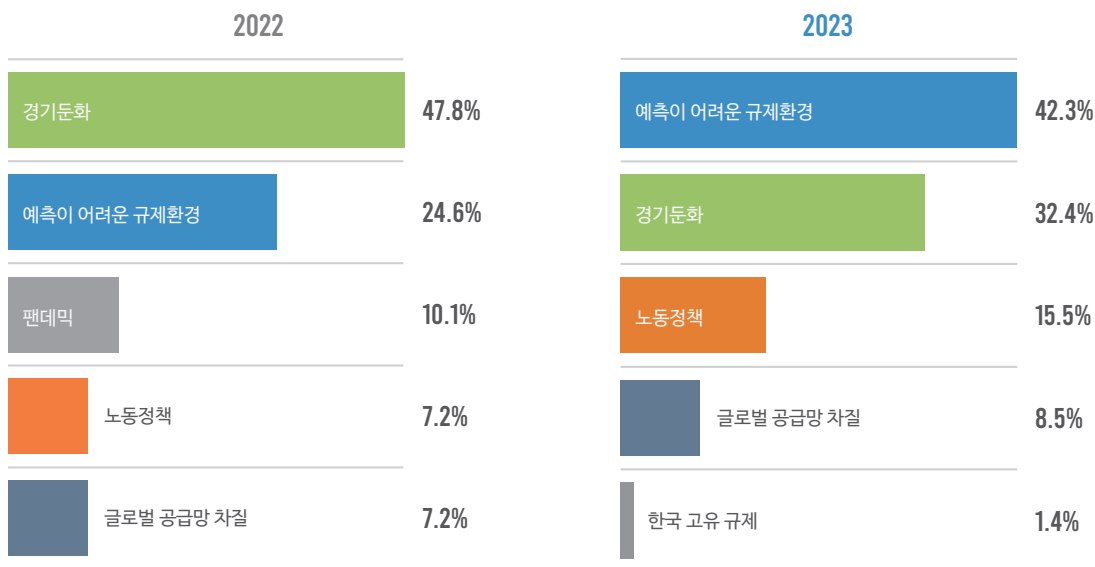


## 2023 비즈니스 환경

### ▶ 국내 경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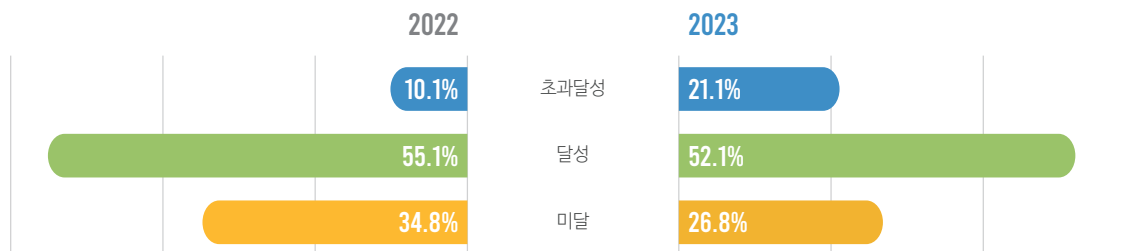
### ▶ 국내 경영 환경 상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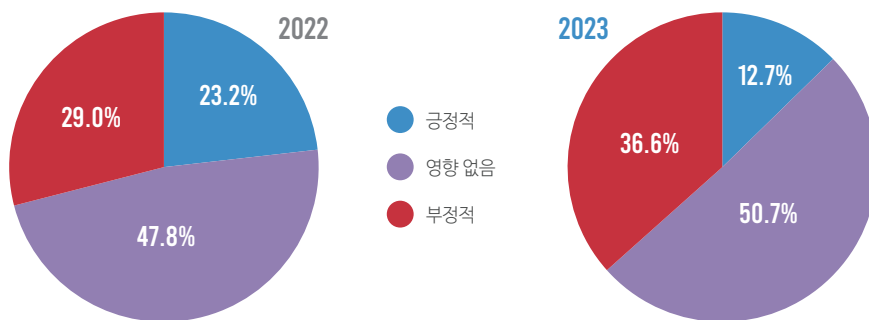
#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 성장 및 정부정책 영향

### ▶ 2023년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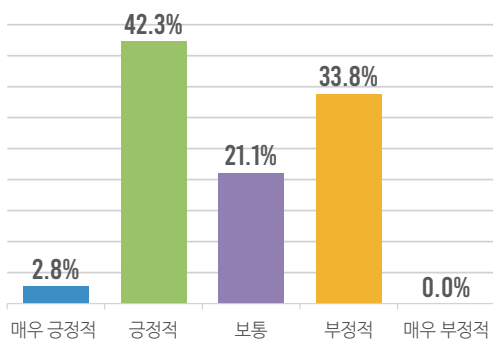


### ▶ 2023년 정부 정책 및 개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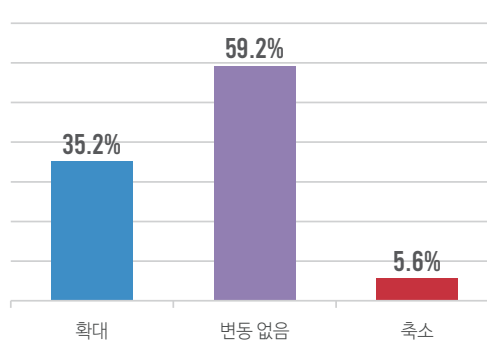


## 2024 - 2026 국내시장 전망

### ▶ 2024 - 2026 국내 사업 전망



### ▶ 2024 - 2026 국내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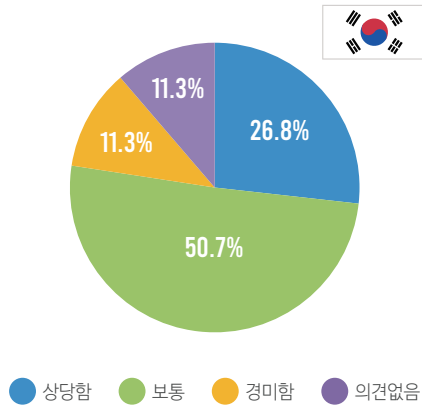


#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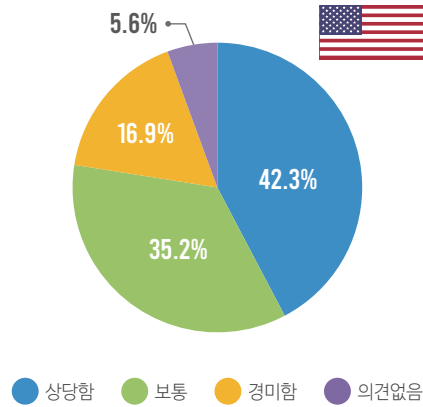


## 한국 · 미국 선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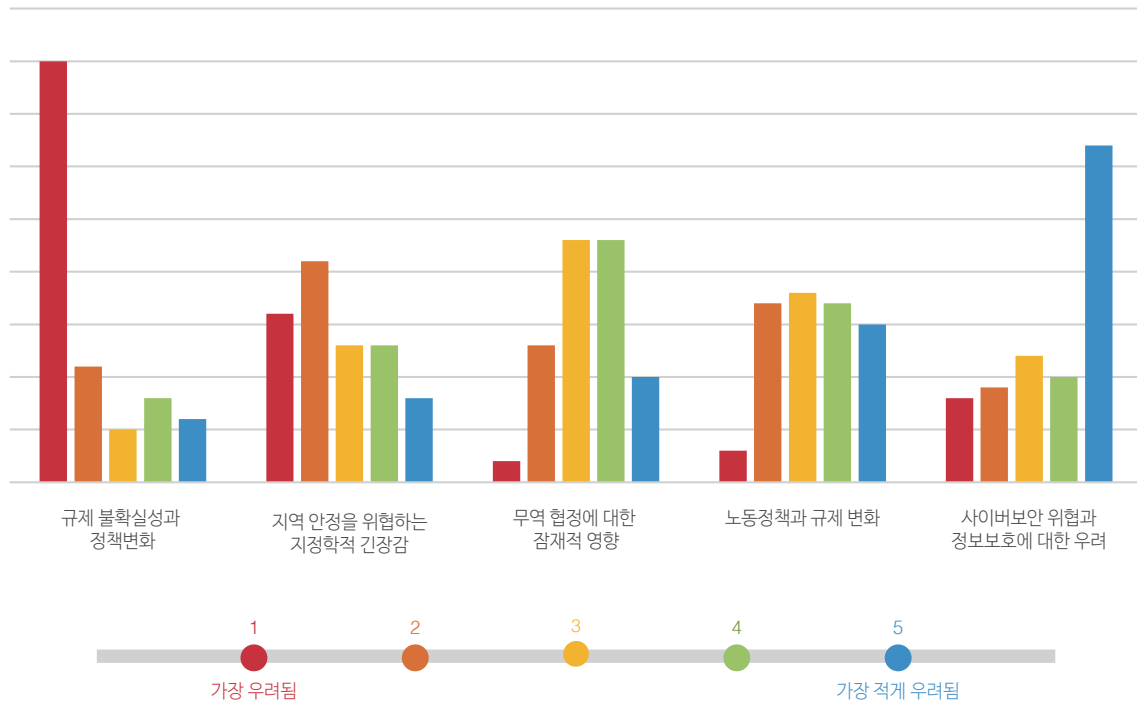
▶ 대한민국 총선거 결과에 따른 산업계 영향



▶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산업계 영향



▶ 한국 · 미국 선거의 잠재적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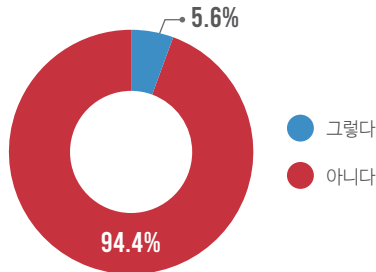


#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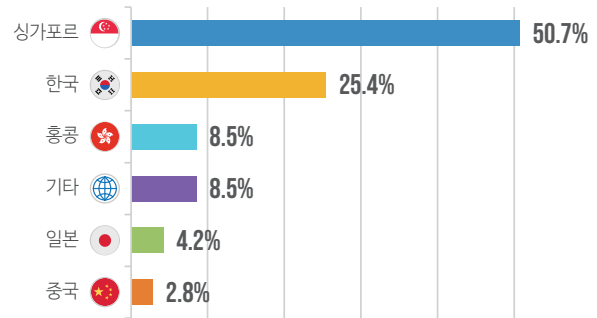


## 아·태 지역 본부로서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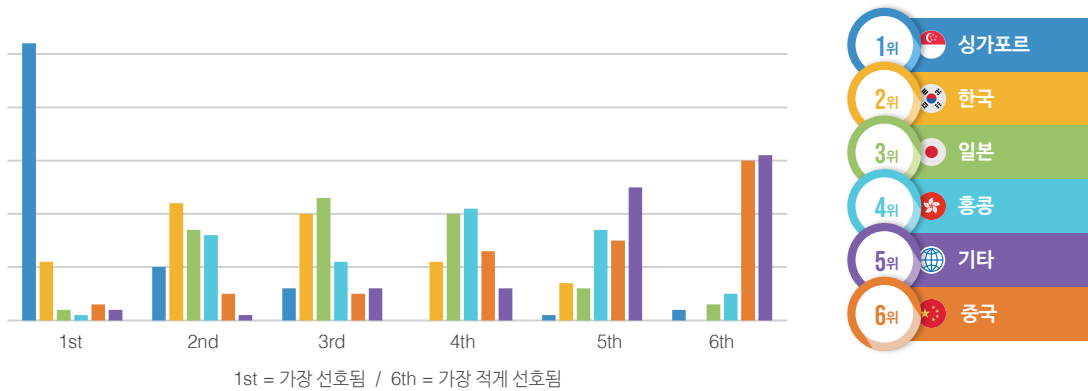
▶ 귀사는 아·태 지역 본부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현재 아·태 지역 본부의 위치



▶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 선호도



▶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개혁 분야

- 1위 노동정책
- 2위 한국 고유의 정책
- 3위 CEO 리스크
- 4위 조세정책
- 5위 디지털경제
- 6위 지적재산권
- 7위 에너지정책

